

나의 영혼의 아버지 취산

문 광 주

문광주님은 박종대 씨의 부인으로 선생님께서 국내에 계실 때 불편없이 생활하시도록 애쓰셨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 계시다. 한 분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곧 친정 아버지요, 또 한 분은 나를 이끌어 주신 아버지, 곧 soul father(영혼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고(故) 박영철 선생이시다.

내가 취산 선생님을 처음 만난 건 약 이십 년 전,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내 생애 가장 비참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물론 그 비참이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랬다.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던 그 때 그 분을 만났다.

당시 전주에는 밝은 생활 모임이 있었는데, 서로 만나면 '감로의 법우'를 낭독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뭔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 좋아 매주 참석했던 기억이 난다. 그곳에서 '생명의 실상'을 만났고 그 책을 번역한 취산과의 깊은 인연은 시작되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그 분 출판사에 붙들려가 잡지 편집 경험을 한 일, 그곳에서 일하던 노총각과 평생 동반자로 맺어진 일, 생의 중간 결산으로 아바타를 경험한 일,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두 아이들의 할아버지 노릇을 해주신 일 등 생애에 있어서 가장 굵직굵직한 일들은 순전히 그 분의 작품이었다. 가끔 그 분을 만나기 전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면 그건 내 전생이었다고 말하곤 한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그렇게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취산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살아 생전에 그분처럼 경험을 창조하신 분이 또 계실까 하는 점이다. 당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말이다. 세심한 부분까지 무심코 넘겨버리지 않는 확장된 주의력은 다방면에 걸친 호기심과 결부되어 재능을 잠재우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새로운 경험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속세말로 집도 절도 없는 빈털털이던 그분이 미내사와 의식개발연구소, 그리고 신과학심포지엄 개최 등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끊임없는 호기심과 대단한 열정의 산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제1회 국제 신과학 심포지엄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재 사무실에서 일산(취산과 함께 살던 우리 집)까지의 출퇴근 전철 안에서 기획된 것이었다. 백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한국인의 미덕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여 거금을 쥐고도 이루기 어려운 일을 기어코 해내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얻은 것이 많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지치지 않는다는 것, 일을 재미있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 빈틈없고 철저한 계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은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일찍 파악했다고나 할까, 그런 것 등은 가까이서 살면서 얻은 커다란 소득이라고 하겠다.

이제 그 분은 새 옷을 갈아입고 낯선 여행을 떠나셨지만 남기고 간 여러 가지 추억들은 계속 살아 남아 완전히 홀로 서는 날까지 내 안에서 꿈틀댈 것 같다.